

오피니언

월/요/광/장

김 용 의



지난 주에 학술대회 참석차 오키나와를 다녀왔다. 학술대회가 끝나고 오키나와현 의회의 다카미네 켄신(高嶺善伸)의장과 저널을 같이 하게 되었다. 작년 7월 지인의 소개로 오키나와에서 처음, 올해 8월 목포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 두 번째, 이번이 세 번째 만남이다. 많지 않은 만남이지만, 만남 때마다 오키나와의 현안문제를 열심히 설명하던 그의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다. 미군의 오키나와 기지문제, 일본의 영토분쟁, 동아시아의 평화와 연대 등, 나는 다카미네 의장과의 대화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운다.

이번 만남에서는 얼마 전에 벌어진 일본 방위성 오키나와방위국장의 '실인' 소동이 단연 화제의 중심이 되었다. 방위국장의 '실인' 소동의 전말은 이러하다. 오키나와방위국에서는 매일 한번 오키나와에 있는 언론사를 대상으로 '오프 더 레코드'를 전제로 하는 비공식 간담회를 개최해

왔다. 그런데 11월 28일 간담회 자리에서 문제가 벌어졌다. 방위국장이 후텐마(普天間)기지 이전 후보지의 환경영향 평가서 제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평가서 제출 시기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것이었다. 그런데 11월 28일 간담회 자리에서 문제가 벌어졌다. 방위국장이 후텐마(普天間)기지 이전 후보지의 환경영향 평가서 제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평가서 제출 시기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것이었다.

광주에서 오키나와를 응원한다

유류 여성의 성폭행에 비유했다. 미리 알고 성폭행을 하는 경우를 보았느냐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한다. 다카미네 의장은 제주도 강정마을의 해군기지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기지를 오키나와 밖이나 일본 밖으로 이전하라는 오키나와 주민들의 요구가 갈수록 거세지자, 미군 당국에서 강정마을의 해군기지를 미군기지 이전을 위한 후보지의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점에 관해

사과하였으며, 문제의 발언을 했던 오키나와방위국장은 경질되기에 이르렀다. 후텐마 기지는 오키나와의 기노완(宜野灣)시에 위치한 미군비행장으로 우리에게도 비교적 익숙한 이름이다. 현재 오키나와의 나고(名護)시에 위치한 헤노코(邊野古)라는 곳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지인들의 반대로 교착 상태에 빠져있다. 2004년 8월에는 이곳 기지의 헬기가 인근 오키나와국제대학의 건물로 추락하여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무슨 인연인지 나는 마침 그때 오키나와에 있었

서는 이미 국내에서도 일부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오키나와에서 돌아와 그 동안 밀린 이메일을 확인하니 오키나와의 지인으로부터 메일이 들어와 있다. 후텐마 기지의 헤노코 이전에 반대하는 집회가 이달 10일에 열린다는 소식이다. 발신자는 다카라벤(高良勉)이라는 오키나와 시인이다. 그는 오키나와의 역사와 문화, 오키나와인들의 정서를 시로 표현하는 한편, 현장에서 활동하는 인권운동가이기도 하다. 오래 전에 어느 학술대회에서 서로 명함을 주고받은 것이 인연이 되어, 지금까지도 이따금씩 오키나와 소식을 메일로 전해준다. 오키나와에 대한 나의 관심이 멀어지지 않도록 일깨워주는 고마운 분이기도 하다.

오키나와현 의회 의장 다카미네 켄신과 오키나와 시인 다카라 벤, 앤지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사람의 모습이 나에게게는 겹쳐져서 다가온다. 오키나와의 운명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들의 마음에 공명(共鳴)하며 광주에서 오키나와를 응원한다.

<전남대학교 일어일문학과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 설

아시아문화전당 사업 더 이상 차질 안 된다

내년 예술감독 선임 등을 골자로 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의 2012년 업무계획이 발표했다. 추진단은 이를 통해 문화전당의 성패를 좌우할 콘텐츠 개발 작업 등 2014년 개관을 목표로 작실했던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동안 옛 전남도청별관 문제로 사업 차질을 빚은 일, 2012년 부분 개관 계획 물거품 등을 보아은 우리로서는 더 이상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확보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옛 전남도청별관 54m 가운데 철거하지 않고 보존키로 했던 30m부분이 구조보강을 통해 공연 및 전시시설로 활용된다. 또 내년에 예술감독 3명이 선임되면서 콘텐츠 개발 등 2014년 개관 준비를 체계적으로 한다는 복안이다. 문화전당은 당초 지난해 말 완공 목표였다. 하지만, 지난 2008년 5·18 관련 단체의 별관 철거 반대에 부딪혔다. '부분

보존' 쪽으로 가다가 잡힐 때까지 2년간 차질을 빚어야만 했다. 또 민선 5기 들어 광주시는 2014년보다 2년 앞당겨 2012년 부분 개관함으로써 국내외 관심을 불러일으킨다는 계획을 추진했으나 콘텐츠 개발 미비로 포기한 상태다. 계획이 자주 반복되면서 시민들은 물론 국내외 문화예술인들의 신뢰를 잃고 있다. 우리가 더 이상의 차질은 안 된다 고 나서는 이이다.

문화전당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우선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현재 공정률이 32%에 불과한 상황에서 2012년 예산도 신청액 1500억 원 가운데 576억 원만 반영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되지 않는다면 2014년 개관도 어렵게 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따라서 지역 정치권과 광주시는 반드시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야 한다. 정부도 국가사업인 만큼 더 이상 늦어지지 않도록 적극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다.

시교육청 고교 배정방식 손질 신중 기해야

광주시교육청이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대폭 열어 사실상 사립학교 지원을 막는 쪽으로 고교 배정방식 변경을 추진 중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40% 인 선배정 비율을 최대 30% 이하로 줄일 계획이라는 것이다.

현재 고교 배정 방식은 선지망에서 정원의 40%를 먼저 뽑고, 나머지 60%는 지리적 정보시스템(GIS)으로 학생이 선택한 5곳 가운데 한곳을 배정한다. 지난 1975년 평준화 도입 이후 2000년까지 강제배정 등을 하다 이후 선배정 비율을 60%에서 점차 줄여 2007년 이후에는 40%를 유지해왔다. 최소한의 선택권 유지와 학교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 교육청은 선비를 축소와 함께 사실상 희망지 배정인 후배정 방식도 중학교 내신성적 등을 고려한 강제배정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후폭풍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 공

립학교의 실력 향상 등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 회복을 위한 자구책은 도의적인 해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꼼수'라는 데 있다.

물론, 시 교육청의 이러한 교육정책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공·사립 간 학력 격차가 커지면서 선지망 비율이 최대 10배 이상 심화되고, 그로인해 공립학교가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더라도 선배정 비율을 대폭 축소하거나 강제 배정까지 하는 것은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비선호 학교 배정 등에 따른 학부모 반발과 우수학생의 타지역 진학, 위장 전입 등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시 교육청은 선배정 비율을 계획대로 밀어붙일 게 아니라 연착륙 방안 검토 등 신중을 기해야 한다. 아울러, 공립학교의 질을 높이는 데도 주안점을 뒀어야 한다. 학력이 올라가면 우수학생이 물러가는 것은 당연한 이치기 아닌가.

법조칼럼



김정숙

'젊은이들은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쾌락에 쉽게 빠져든다. 그들은 버릇없이 굴고 종종 기득권에 도전한다. 자신보다 나이 많은 이에게 예의를 갖추지 않을 뿐 아니라 심지어 부모에게 대들고 선생님을 괴롭힌다.'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 또한 청소년들의 행동으로 인해 곤혹스러워 했던 기성세대였다는 사실에, 우리 모두 그 혼란의 시기를 거쳐 왔음에도 수천 년 전부터 기성세대들에게 청소년들은 이해할 수 없고,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 아무런 생각 없이 행동하며, 어른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수수께끼 같은 존재였다는 점에 공감하며 웃게 되는 글이

청소년의 뇌는 지금 공사중

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에 행복을 느끼는 순간이 많지만 사춘기에 접어들어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반항하며 거칠고 무례하게 행동하는 아이를 볼 때면 혼란스러울 뿐 아니라 어느 순간 두려워하기도 한다. 소년보호법정이나 형사법정에서 청소년들을 만나게 되는 경우도 그렇다. 재판관 통해 만나게 되는 그들은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사소한 동기로 무모하게 행동하고 그로 인해 마주치게 된 엄청난 결과에 어찌할 바 몰라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다. 이 아이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최근 발표된 신경과학분야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렇듯 기성세대를 당혹스럽게 하고 그들 또한 혼란스러워 하는 10대들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 그들의 뇌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관련이 있다고 한다.

청소년기에는 우리 뇌의 충사령관으로서 정서적 충동을 조절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예측하여 계획하는 역할 등을 담

당하는 전두엽이 새롭게 리모델링되는 과정을 겪으며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반면 공포와 분노 등의 감정을 관장하는 편도체는 호르몬의 변화로 과도한 자극을 받아 매우 활성화된다. 마치 '최신형 스포츠카의 엔진을 가졌으나 말을 잘 듣지 않는 브레이크를 장착한 자동차'와 같은 상태가 된다는 것이다. 그들의 충동적이고 위험한 행동은 대부분 그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활성화된 편도체의 활동을 미숙한 충사령관이 제어하지 못하는 발달과정상의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에게 미리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오히려 힘든 일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한편 우리들이 청소년기의 뇌의 변화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것은 '뇌의 영역별 발달은 정해진 시간대에 일어나며 그 시기에 뇌의 신경망이 연결되지 않으면 관련 뇌세포가 쇠퇴하고 만다'는 점이다. 청소년기에 그들의 뇌 속에 정서적 충동을 조절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예측하여 계획할 수 있는 신경회로를 발달시켜놓지 않으면, 즉 리모델링 과정에 있는 전두엽이

그 공사를 제대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충동적이고 즉각적인 반응을 일삼는 '문제어른'이 될 가능성이 크다. 청소년들의 일탈 행동을 한 때의 일로 치부하고 그저 시간이 해결해줄 것이라고 기대하며 방치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 법은 청소년들의 비행이나 범죄에 대해 일반 형사 절차와는 구별되는 특별한 절차로 소년보호재판절차를 마련해두고 있다. 소년들의 비행사실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아이들을 둘러싼 재판환경을 면밀히 조사하여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위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여러 가지 보호처분을 취하는 절차다. 충동적인 아이들의 행동이 그들의 의지, 심성과 무관한 뇌의 발달과정에 따르는 특징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그들의 행동을 비난하고 질타하는 대신 공감하고 포용하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또 아이들이 자신 충동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격려하는 것, 그들이 충동을 억제하는 힘을 갖추게 될 때까지 가까이 그들의 '외부의 뇌'가 돼 주어야 하는 것이 바로 소년보호재판이 지향해야 할 바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광주지법 민사5부 부장판사>

기고



나경택

"광주에 온 외지 손님들에게 보여줄 만한 곳은 빛고을노인건강타운입니다." 최근 영남지역 교수와 업계,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 수 십명을 안내하며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을 찾은 키우리한국산학협동연구원장 오성동 조선대 교수가 한 말이다. 빛고을노인건강타운에는 서울, 영남, 제주도를 비롯한 중국, 일본, 말리 북유럽에서도 벤치마킹을 하러 온 데 이어 지금도 국내외 방문객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곳 직원들은 지금 한국 최고, 동양 최고라 일컬어지는 시설에 만족하기보다 매년

살기좋은 도시, 내일을 만 한 곳

고객 중심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않으면 뒤떨어지는 타운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얼마 전 신문과 광고 등에서 광주가 건강, 교육, 주거, 환경, 의료 등 모든 분야에서 살기좋은 도시에 선두로 꼽힌 것을 보았다. 심각한 애국자에 속했던 광주사랑론자로서 이러한 기사나 광고만 보아도 가슴이 뛰면서 기분이 좋아진다. 상대적으로 낮은 주거비와 좋은 교육여건, 깨끗한 환경과 높은 의료수준은 그만큼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을 높이는 데 기여하게 된다.

그런데 이 조사의 분야를 더 세분화하여 '노후' 항목, 즉 고령화대비 항목이 추가됐다면 광주는 더더욱 살기좋은 도시로 꼽혔을 것이다. 빛고을노인건강타운과 효령노인복지타운을 소유한 것만으로 그렇다. 이 두 노인시설에서 느끼는 이용자들의 만

족감은 물론이거니와 노인 여가복지의 폭을 넓히려는 재단측의 부단한 노력을 보아도 광주 역시 이미 '보편적 노인복지의 발전'이 빠른 편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국내외 방문객들에 의해서도 입증되고 있다. 수도권만 강남구청장, 인천광역시청 등이 직접 찾아 벤치마킹을 해갈 정도로 '노인여가시설'로서의 성공적인 입지와 운영을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0월 노인의 날에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을 찾은 강운대 시장은 광주 노인들을 위해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더 늘려 노인들의 행복한 삶을 약속했다. 광주의 '노인행복도시' 추구는 점점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더 폭넓은 시설 이용 방안, 재정 지원 방안 등 잔존 과제들이 빛고을노인건강타운과 효령노인복지타운에 있지만 이는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견지에서 풀어야 할 문제다. 당치의 논리라면, 손익의 계산으로만

파질 수 없는 존재가치가 분명히 이 두 타운에 있다.

두 시설의 운영을 맡고 있는 빛고을노인복지재단은 앞서 말했듯 '시설만 최고'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펼칠 계획이다. 우선 거리상 그리고 여건상 이 두 타운으로 쉽게 오갈 수 있는 분들을 위해 '이동 건강타운'을 운영한다. 이동건강타운은 물리치료기와 노래방 반주기 등을 준비해 작은 경로당 등을 찾아다니며 공연과 물리치료서비스를 해주는 것을 말한다.

또 자체 보유 셔틀버스와는 별도로 대형 버스를 임대해 대중 등 원거리 지역을 돌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는 식당, 목욕탕과 모든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빛고을노인건강타운과 효령노인복지타운은 젊고 과격적인 노후 여가의 책임자로서 엄격한 체질 관리를 하고 있는 셈이다. 살기좋은 도시에서 내일을만 한 곳으로 손꼽히는 것, 호락호락한 일만은 아닌 것 같다. <빛고을노인복지재단 부장>

물량이 고작 하루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제는 자원의외교에 더 힘을 기울여야 한다. 앞으로 희귀금속 자급률을 높여나가야 하면 안정적으로 수입할 수 있는 루트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희귀자원을 제대로 수입하기 위해 광물자원 보유국과 유대를 강화하는 외교가 필요할 듯하다. ▲이은숙·광주시 복구지아동

희귀금속 확보 위한 자원의외교 강화해야

요즘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 놀랍게도 희토류라는 희귀 금속은 휴대폰 제조에도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광물이라고 한다. 그런데 희토류 수입이 중단돼서 휴대폰을 만들 수 없고, 그래서 사람들이 휴대폰을 쓸 수 없다면 그 불편함은 어떻게 될까. 작년에 센카쿠열도라는 조그만 땅을 두고 중국과 일본의 영토 분쟁이 아주 심했다. 독도 때문에 분쟁이 터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영토 문제로 자주 주변국과 마찰을 일으키는 일본이 너무나 괴롭하기도 해서 그 과정을 눈여겨 지켜왔다. 일본이 영토분쟁을 일으키자 중국이 제일 먼저 들고 나온 무기는 바로 일본에 대한 희

토류 수출을 중단한다는 것이었다. 그때 처음으로 희토류라는 걸 알았다. 희토류가 차세대 첨단 전자과학을 이끌어가는 절대적인 광물이라는 점, 그리고 이 기간에 엄청난 파위로 자원무기화 할 수 있다는 사실도 전세계가 다시금 깨달았다. 두 나라 사이의 분쟁을 지켜보던 거대강국 미국이 그동안 그동안 가동을 중단하고 썩고 있던 자국의 희토류 광산을 재가동할 거라며 법석을 떨었을 정도였다. 미국은 그 광산을 재가동하는데 천문학적인 비용과 시간적으로도 앞으로 15년은 걸려야 그걸 정상 재가동할 수 있는데도 그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광산 재가동에 돌입했다는 것이다.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민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6메일 opinion@kwangju.co.kr

無 等 鼓

사람의 수명을 상·중·하로 나눌 때 상수(上壽)는 100세에 해당한다. 최상의 수명인 100세를 뜻하는 '기(期)에 장수(長壽)를 기원하는 기(期)라고도 한다. 병 없이 100세까지 산다면 글자 그대로 천수(天壽)를 누리라는 셈이다. 충북 보은군은 지난달 전국 최초로 80세 이상 노인들만 이용할 수 있는 경로당인 '상수(上壽) 사랑방'을 열어 화

은 1836명으로, 5년 전에 비해 91%나 늘었다. 유엔은 '세계인구고령화' 보고서에서 2020년에 평균 수명이 80세가 넘는 국가가 31개국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를 '호모 헨드레드(Homo Hundred) 시대'로 정의했다. 지난 주 정부 11개 부처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공동 주최한 '역동적인 100세 사회' 컨퍼런스에서는 100세 시대에 대비한 다양한 제안이 쏟아졌다. 고령화를 단 순히 노인인구 증가와 그들에 대한 돌봄 문제로 보지 말고 생애 전 주기를 포괄하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 직업과 교육, 노동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100세 시대의 도래가 촉박하다고 생각하는 늦어준 주민은 전체의 3분의 1에 불과하다는 설문 결과도 소개됐다. 수명 연장기 재앙이 아닌 촉박이 되게 하려면 길어진 생애 주기에 걸맞게 사회시스템이나 국가정책의 틀도 확보해야 함은 물론이다. /정후식 정치부장 who@kwangju.co.kr

호모 헨드레드

| | | | |
|---|----------------|-------------------------|-------------------|
| 光 州 日 報 | | The Kwangju Ilbo | |
|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李康完 | | | |
|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1111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1 | | | |
| 대표전화 222-8111·2200-551 <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 | 광고문의 062-227-9600 | |
|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 문화생활부 2200-661 | 경영지원국 2200-515 | 문화홍보국 2200-541 |
| 편집부 2200-649 | 여론재무부 2200-621 | F A X 222-8005 | F A X 222-0195 |
| 정경부 2200-612 | 체육팀 2200-697 | 광고마케팅국 227-9600 | 독자서비스국 2200-551 |
| <대표 FAX 222-4918> | 사 진 부 2200-693 | F A X 227-9500 | F A X 227-9500 |
| 사회부 2200-616 | 조 사 부 2200-571 | 디자인 2200-536 | 서울지사 02-773-9331 |
| <대표 FAX 222-4267> | 전 신 팀 2200-685 | 기획사업국 2200-555 | F A X 02-773-9335 |
|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 | | |
|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 | |